

기획 : 『과학혁명의 구조』 50주년 기념 - 토마스 쿤과 과학기술사

토마스 쿤 개인적 회고

김영식 (서울대학교)

토마스 쿤의 사상과 학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소개하고 평가하고 토론해 왔다. 내 자신도 1980년에 그의 사상을 소개하는 글을 쓴 이래 몇 편의 글들과 여러 차례의 강연을 해 온 바 있다.¹⁾ 이 글에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쿤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회고해 보기로 할 텐데,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내가 쿤이 교수로 있던 프린스턴 대학의 과학사 및 과학철학 과정(Program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의 대학원생으로 있었지만 그는 내 지도교수가 아니었고, 전공분야도 나와 아주 달랐다는 점이다. 그는 잘 아는 대로 과학철학, 그리고 18-20세기 물리학사를 주로 연구했고 나는 주로 중국 및 동아시아의 과학과 자연철학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왔다. 따라서 이 회고는 자신이 지도교수를 맡은 것도 아니었고 전공 분야도 크게 달랐던 대학원생을 그가 어떻게 대했나 하는 것을 보여 줄 것이고 이를 통해 학문과 사상 이외에 개인적 측면에서 대학자 쿤의 인간적 면모를 보여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1) 金永植, “토마스 쿤의 科學觀”, 『현상과 인식』, 제4권 제1호 (1980), 133-159쪽으로 처음 출판한 후 여러 형태로 수정, 보완하여 발표했으며, 가장 최근의 형태는 “토마스 쿤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제목으로 김영식, 『과학, 역사 그리고 과학사』 (서울: 생각의나무, 2008), 170-198쪽에 실려 있다.

1.

토마스 쿤의 이름을 내가 처음 접한 것은 1972년 가을 학기로, 하버드 대학의 화학과 대학원생으로 있으면서 청강한 교과목 “Philosophy of Science”를 통해서였다. 그 과목의 독서 과제 목록에 당시 주목을 받기 시작하던 그의 책, 『과학혁명의 구조』가 들어있었다. 독서과제 목록에 있었지만, 당시 청강만 하던 나는 이 책을 읽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해 12월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모임에서 사튼 강연(Sarton Lecture)을 하는 쿤을 먼발치서 처음 보게 되었다. 강연은 나중에 “Mathematical vs. Experimental Traditions in the Development of Physical Science”라는 제목의 논문²⁾으로 출판되었는데, 아직 과학사에 문외한이었던 나는 그 강연을 들으면서 별로 깊은 감동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읽지 않고 두었던 쿤의 책은 바로 얼마 후인 1973년 1월에 플로리다의 새니벨 섬(Sanibel Island)에서 열린 2주간의 양자화학 워크숍(Quantum Chemistry Workshop) 기간 중 읽으려고 가지고 갔는데 가는 비행기에서 읽기 시작했다가 곧 빠져들어 처음 이틀간의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읽기를 마쳤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때 나는 이미 과학사 분야를 전공으로 하는 두 번째 박사 과정 공부를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프린스턴 대학 대학원 과정에 지원을 해 놓은 상태였는데 쿤이 프린스턴에 있다는 것이 큰 기대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쿤과의 첫 개인적 접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974년 3월, 당시 프린스턴 대학 과학사 및 과학철학 과정 주임 대행을 맡고 있던 그로부터 온 편지였다. 1973년 6월 하버드 대학에서 화학물리 전공 박사 학위를 받은 나는 일단 프린스턴으로 가는 것을 1년 연기하고 바텔연구소(Battelle Institute)의 연구원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그 전 해의 입학 허가를 다시 확인한다는 편지를 보내왔던 것이다. 그 긴 편지에서 그는 박사 학위 취득 후의 취업 사정이 지극히 나빠진 상황에서 이제 자신이 과거 그런 편지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축하하기만 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한 후 그 같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을 내리라고 권했는데,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렇지만 자신은 내가 오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자신 같은 학자들이 맛보는 큰 보람이 대학원생

2) Thomas S. Kuhn, “Mathematical versus Experimental Traditions in the Development of Physical Science,” *Journal of the Interdisciplinary History* 7 (1976), pp. 1-31.

들을 가르쳐서 키우는 데에 있기 때문이라는 그의 이야기였다.

쿤과 직접 만나게 된 것은 1974년 9월 프린스턴 대학원생이 된 후였다. 그는 1년에 두세 명씩 입학하는 대학원생들 각각에게 관심을 지니고 있었고 당시 연구년 학기인데도 쿤이 학교에 나와 새 대학원생들 모두와 개별 면담을 했었다. 나와서 면담에서 앞으로 연구 주제를 무엇으로 잡으려고 하느냐고 묻는 그에게 나는 중국의 과학을 공부할 테고 중국의 과학이 왜 발전하지 못했는가 같은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했던 것 같다. 그때 그가 해 준 말이 아직 기억이 나는데, 자기는 내가 그 같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문제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예컨대 11세기 초의 중국의 과학은 어떠했고 그것이 11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되었으며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와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보여주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것이었다.

2.

그 후 대학원 과정 중 쿤과의 사이에 있었던 일들로 기억나는 것은 주로 내가 세운 공부나 시험 계획들에 대해 그가 참견한 일들이었다. 자신이 지도 교수가 아닌 학생에 대해서도 최선의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하려는 그의 배려와 고집을 보여준다.

두 번째 학기인 1975년 2월에 그가 “Development of Scientific Knowledge”라는 제목의 과학철학 대학원 세미나 과목을 개설했다. 나는 수강신청은 하지 않고 그냥 ‘청강’(audit)을 하겠다고 첫 시간에 들어갔는데, 시간이 끝난 후 그가 나를 불러서 “너는 지금 과학사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이 과목 이외에도 역사학 교과목들도 듣고 해야 하는데, 이 과목은 너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니 듣지 말라”는 취지로 설득해서 결국 단념하도록 만들었다.

1학년을 마친 1975년 5월 나는 논문 제출 자격 종합시험(general examination)을 치를 세 분야를 정해서 과정에 제출해야 했다. 과학사를 전공하는 모든 학생들이 세 분야 중 한 분야로 “과학혁명”을 택하는 것이 관례였기에 나 역시 그렇게 했고 한 분야는 과학사가 아닌 일반 역사 쪽에서 선택해야 했기에 중국사상사를 택했지만, 세 번째 분야가 문제였다. 나는 내 연구 주제에 맞도록 “중세 과학사”를 택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검토하는 교수 회의에서

쿤이 반대를 했던 것이었다. “과학혁명”과 “중세과학”은 사실상 하나의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이니 더 폭넓은 지식을 얻기 위해 그리고 본격적인 과학을 다룰 수 있게 되기 위해 그 이후의 시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나는 “18세기 과학의 사회사”를 선택했는데 그 덕분에 18, 19세기 과학사를 더 깊이 공부할 수가 있게 되었다.

1976년 2월 네 번째 학기가 되어서야 나는 “Development of Modern Physics”라는 제목의 쿤의 대학원 세미나를 수강하게 되었는데 이 과목을 두고서도 역시 쿤과의 실랑이 - 이번에는 또 다른 종류의 - 가 있었다. 당시 프린스턴 대학의 과학사 프로그램 규정은 한 학기에 여러 과목을 수강하더라도 연구 논문은 그중 한 과목에 대해서만 쓰면 되었고, 수료하기 전 연구 논문 세 개를 쓰면 수료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네 학기 째인 이때 나는 이미 세 개의 연구 논문을 쓴 후였기 때문에 그 과목에서는 연구 논문을 쓰지 않으려고 계획했는데 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었다. 그가 제시한 이유는, 내가 그때까지 쓴 세 편의 연구 논문들³⁾은 과학의 전문적 내용을 본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니 그런 성격의 연구 논문을 쓰는 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 문헌들에서 연구 주제를 찾아 연구하고 그 결과를 글로 쓰고 고쳐서 완성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데 장기를 지닌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있는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쿤이 그런 훈련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었다. 저항하는 나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는 “Since you are here, you should exploit me”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고, 사실 나와 같이 자연과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한 배경을 지닌 학생이 들어오면 대개는 자신을 지도교수로 하고 논문 연구를 했고 내 경우도 그럴 줄 알았었는데, 내가 다른 관심을 지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자기의 지도로 연구 논문을 한 편도 쓰지 않으려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도 했다. 결국 나는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고, 루돌프 클라우지우스(Rudolph Clausius, 1822-1888)의 논문들을 읽고 연구 논문을 한 편 쓰기로 했다. 그 후 거의 수년간 틈틈이 내가 씨름했던 연구 프로젝트 하나가 그렇게 시작되었다.⁴⁾

3) 한 편은 19세기 초 영국의 왕립연구소(Royal Institution), 한 편은 왕부지(王夫子, 1619-1692)의 ‘理’ 관념, 그리고 다른 한 편은 로버트 보일(Robert Boyle)의 기계적 철학에 대한 것이었다.

4) 이 프로젝트는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결국 Yung Sik Kim, “Clausius's Endeavor to

클라우지우스의 논문들을 읽는 과정에서 나는 “클라우지우스 부등식 (Clausius inequality)” 으로부터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는 열역학 제2법칙이 얻어지는 과정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것이 아니라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를 찾아가 그렇게 내가 깨달은 사실을 설명하면서 했던 그와의 30분 이상의 논쟁이 아직 기억에 남는다. 처음 그는 당연히 학생이 무언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거나 하고 수궁하지 않으려 들었다. 그러나 차츰 내 이야기를 수궁하며 듣게 되고,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분명한 것을 잘못 생각해 왔었다는 것을 깨닫자 “Shit!”이라고 내뿜는 것이었는데 그 순간의 그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다. 사실 그는 자신의 연구 주제, 논문 작성 등에 대해 학생들과도 솔직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때로는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이 세미나에서 읽던 자료 한 가지에 대해서 논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마주친 나에게, 자신이 이 자료를 미리 봤었다더라면 이미 투고한 위에 언급한 논문, “Mathematical versus Experimental Traditions”에서의 자신의 주장을 더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펍 아쉬워하기도 했다.

이때 일과 관련해서 그는 2년 후 출간된 그의 책⁵⁾의 주석의 한 부분에서 “Work done in one of my seminars by Dr. Yung Sik Kim has helped me recognize how hard it is to retrieve more than hints of Planck’s ultimately standard version of the second law from Clausius”라고 썼는데, 연구 도중 학생 으로부터 받은 사소한 도움도 분명히 밝혀 써 주는 그의 공평하고 정확한 성격을 읽을 수 있었다. 이 일에는 후일담이 있다. 1977년 6월 귀국해서 서울대 화학과에 재직하고 있던 내가 1979년 1월에 프린스턴을 방문해서 쿤을 만났을 때 그는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 책 한 권을 꺼내 “For Yung Sik Kim, who will find evidence of his intervention in Chapters 1 & 2. Tom Kuhn”이라고 사인해서 내게 주었는데, 사인을 하는 도중 “who will”이라고 쓰던 도중 만년필의 잉크가 떨어졌다. 그러자 그는 다른 펜으로 계속 써나가게 되면 앞 뒤 부분이 차이가 날 것이 싫었던지 새 책을 꺼내서 다시 사인을 하려 했고,

Generalize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1850-1865,” *Archives internationales d’histoire des sciences* 33 (1983), pp. 256-273으로 출판되었다.

5) Thomas S. Kuhn, *Black-Body Theory and the Quantum Discontinuity, 1894-1912*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내가 그럴 필요 없다고 말려서야 같은 책에 사인을 계속해서 내게 주었고, 아직도 내가 간직하고 있는 그 책의 첫 페이지에는 시작과 끝이 다른 펜으로, 따라서 다른 굵기로 쓰인 그의 글씨가 남아 있다.

1976년 6월에 내가 “Science and Society in 18th Century”라는 주제로 마지막 세 번째 종합시험을 치를 때도 역시 쿤이 끼어들었다. 필기시험을 치르고 구두시험 날짜를 잡는 과정에서 쿤의 외국 여행 일정 때문에 며칠을 더 기다려야 하게 되었던 것이다. 내 전공이나 당시 과정의 교수진 구성으로 봐서 쿤이 그가 꼭 구두시험에 참여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그는 자신이 그 시험에 들어와야겠다고 고집했다. 학생이 세 번의 종합시험을 치르는데 자기가 한 번도 안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그 때문에 나는 마지막 필기시험을 치르고도 구두시험 일자가 늦어져 종합시험으로부터의 해방을 며칠 늦추어야 했다. 구두시험이 끝나고 밖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내게 쿤은 시험위원 세 사람 중 맨 먼저 나와서 “No more exam! No more exam!” 이라고 합격했음을 알려 주면서 악수를 청하고 축하해 주었다. 내 지도교수였던 길리스피(Charles C. Gillispie)교수는 이 시험에 쿤이 들어오기로 해서 구두시험 일정이 늦어지는 것을 내게 알려주면서 쿤이 자신은 그냥 들어와서 지켜보기만 하겠다고 했지만 그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것을 잘 알지 않느냐고 이야기해 주었었는데, 역시 쿤은 왜 주제와 달리 독서목록에 19세기에 관련된 내용이 더 많은냐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을 물었다.

나는 종합시험을 마친 후 1977년 5월까지 1년간 프린스턴에서 논문 집필 작업을 하다가 귀국했는데, 1977년 2월에 시작하는 학기에 쿤의 학부 과학철학 과목을 청강했다. 2년 전 내가 대학원 과학철학 세미나에 들어오는 것을 말렸던 그는 이번에는 전혀 판판의 반응을 보였다. 그 이유가 이제 과학사 공부와 연구를 제법 했으니 과학철학 과목을 들을 여유가 있겠다고 생각해서였는지, 아니면 과학사 전공의 대학원생이 과학철학의 대학원 수준의 과학철학 과목에 빠져 드는 것은 도움이 안 되지만 학부 수준의 과학철학 강의는 들으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서였는지, 어쨌든 두 가지 다인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내가 하루 수업에 안 들어갔었을 때 그 다음날 프로그램 사무실에서 나를 본 그가 전날 강의 노트를 건네주면서 복사하고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쿤은 학기 중 갑자기 호흡기 관련 병으로 이 과목 강의를 절반쯤에서 그

만 두어야 했고, 마침 이미 은퇴해서 쉬고 있던 험펠(Carl Hempel)이 나머지 반을 대신 강의하게 되었다. 쿤은 당초 이 과목의 앞 절반은 전통적 분석철학적 경향, 그리고 뒤 절반은 자신이나 라카토스(Imre Lakatos), 파이어아벤트(Paul Feyerabend) 등의 새로운 경향의 과학철학으로 계획했었는데 병 때문에 앞부분만 쿤 자신이 강의하고 정작 뒷부분은 오히려 분석철학적 경향의 험펠이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시간에 건강이 회복된 쿤이 나와서 험펠의 강의를 학생들과 같이 들은 후,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험펠 경향의 분석철학 쪽을 강의하고 험펠이 자신의 경향 쪽을 강의하게 된 것이 오히려 잘된 면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3.

1977년 6월에 내가 귀국한 후에도 쿤과의 교류는 지속되었다. 주로 서신 교환을 통해서였지만 가끔씩 내가 미국에 가게 되었을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지금은 이메일이 보편화되었지만 1996년에 사망한 그와는 한 번도 이메일 교신은 하지 않았다. 물론 편지 교환은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다. 일단 편지를 부치면 가는 데 일주일, 오는 데 일주일 이상이 걸렸기 때문에 바로 답장을 해도 편지를 보낸 후 보름 이상을 기다려야만 답을 받을 수 있는 식이었다.

귀국한 지 반년 정도 된 1977년 11월 말 나는 클라우지우스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 논문 원고를 완성해서 그에게 보냈다. 귀국 후 처음 보내는 편지였기에 화학과 소속으로 보내야 하는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에 대해서도 썼던 것 같다. 그는 3개월이 지난 다음 해 2월 말에 뽁뽁하게 두 페이지 분량의 답을 보내 왔는데 편지와 원고를 잘 받았다는 첫 문장에 이어지는 다음과 같은 말은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I was very pleased to have news of you and, in any case, want very much to have you feel that I am available to you as a consultant on problems like those your letter raises. But the months since your letter arrived have been extraordinarily busy ones for me. I did not even have the chance to look at your manuscript until a few weeks ago, and it has taken me the entire time since to reserve an interval

to put together a response. Please forgive me and do not conclude that I am genuinely unavailable.

그리고 이어지는 두 페이지 분량의 코멘트는 다음과 같이 시작됐다.

I am delighted that you have written up your Clausius material, think that your point is thoroughly worth making, and urge you to put the manuscript in shape for publication. But I do have a number of suggestions to make, a number of them pretty trivial, but not all in that category. The more important ones will be clearer to you if you read the part of my first chapter which overlaps your note, and I am enclosing the relevant pages so that you can do so. You may, of course, not agree with what I say there, but you should at least know about it.

그 후 나는 화학과 소속으로 화학 과목들과 과학사 과목들의 강의를 하면서 주희의 자연지식을 주제로 하는 박사 학위 논문 작업을 해서 1979년 10월에 제출하고 1980년 1월에 학위를 받았다. 마침 그때쯤 『현상과 인식』이라는 계간지의 “인물과 사상” 시리즈에 쿤에 관한 원고 청탁을 받게 되었고 그것을 쓰기 위해 그에게 자신의 전기적 자료를 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아마 그 시리즈의 성격을 알리려고 앞에 포퍼(Karl Popper), 푸코(Michel Foucault), 촘스키(Noam Chomsky) 등을 다루었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자신의 이력서를 동봉한 편지에서 자신에 관한 자료가 담긴 몇 가지 소스(source)들을 알려준 다음 그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One or another of those sources is likely to supply what you need, though I am sufficiently nonplussed by the company in which your letter puts me to be uncertain just what is likely to prove appropriate.

나는 “nonplussed”라는 단어를 그 편지에서 처음 접했기에 사전을 찾았던 기억이 난다.

다음 해인 1981년 1월에는 내가 MIT의 STS 프로그램에서 주관하는 연구비(fellowship)에 지원을 하게 되어 그에게 추천서를 부탁했는데, 그에게서 온 답 역시 진지하고 솔직한 그의 모습을 보여 준다.

I shall do what I can, but I have to tell you that I am not optimistic. [...] No decisions have yet been made, so there is always a chance. but there is also a major difficulty, and I suspect it will prove decisive. The group selecting S.T.S. fellows tries quite hard to find people working on projects that relate both to each other and to the topics being explored by the faculty. To most of the people with whom I have discussed you, your work looks too far from the mainstream.

이렇게 시작한 그의 이야기는 몇 마디를 더한 후 “I am still keeping my fingers crossed”라는 말로 이어졌지만 상황이 어쩔다는 것은 내게 분명히 해 준 후였다. 그 후 내 자신도 교수 생활을 해 오면서 학생들에게 차마 하기 힘들지만 결국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 주어야만 하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되었다. 물론 나는 MIT의 연구비를 받지 못했다.

얼마 후 3월에 나는 그간 작업해 왔던 클라우지우스의 두 번째 원고를 그에게 보냈다. 역시 세 달쯤 지난 후 도착한 그의 답신은 이번에는 더 길었는데 일단 다음과 같이 시작했다.

I am by no means sure what to tell you about your paper. The point about which you began to write is thoroughly worth making, though perhaps of less than cosmic importance. This version of the paper suggests that you may be able to make a vastly more important and exciting point, and that would be still more worthwhile.

그러나 얼마 후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첫 번째 원고에 대해서보다 비판의 강도가 좀 더 심해져 있었다. 몇 구절들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The basic trouble with the manuscript as it stands is that you are far too little selective. In the first eighteen pages you give far too much space to paraphrasing Clausius' main papers as though for their own sake. [...] Elsewhere, you seem to be including material simply because it is in the original papers rather than because it is needed to support and to permit understanding of your conclusions. [...] but occasionally, especially in the discussion of equivalent transformations on p. 6, I think you do not take sufficient space to pin down an essential idea down.

물론 나는 상당히 기운이 빠졌고 얼마동안 클라우지우스에 관한 작업에서 손을 놓고 지냈다.

그러다가 다음해인 1982년 3월부터 1년간 나는 프린스턴에 체재하게 되었는데 이때 당시 프린스턴에서 조교수로 있던 서보스(John Servos)에게 불평 비슷하게 클라우지우스에 대한 그간의 내 작업과 쿤의 비판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 같다. 이에 대한 서보스의 즉각적인 반응은 “That’s typical Tom!”이었다. 쿤의 여러 학생들로부터 원고 작성 작업이 진행되면 될수록 쿤의 비판이 더 심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었다. 내 지도교수였던 길리스피 교수도 1982년 7월까지 파리에서 연구년을 보내고 프린스턴에 돌아온 후 이 원고의 진행 상황에 대해 나로부터 이야기 듣고서, 그것이 쿤의 전형적인 태도이니 실망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그는 쿤이 남들은 보지 못하는 문제를 찾아내거나 모두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으며, 따라서 쿤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때는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 테니 반드시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그는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도 사실 과학이라는 것에 대해 그동안 모두들 잘못 생각해 온 것을 지적해준 책이지 않았냐고 덧붙였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어렴풋이 느꼈지만, 아주 대조적인 성격을 지니고서도 상대방에 대해 서로 깊은 인간적, 학문적 신뢰를 지닌 이 두 사람의 대학자들을 선생으로 두고 그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며 지낼 수 있었던 것이 큰 행운이었음을 다시 느끼게 된다.

결국 나는 원고 수정 작업을 한 번 더 했고 8월에 세 번째 원고를 쿤에게 보냈다. 이번에는 한 달 남짓 만에 온 그의 답신은 한 페이지였는데, 우선 “I am very pleased with the result. I think the paper does need some quite careful detailed editing for clarity and English idiom. But I now think that is all it needs”라는 말로 이제는 됐음을 말해 주었다. 뒤이어 그는 Historical Studies in the Physical Sciences에 투고하기 위해 존 하일브론(John Heilbron)이나 노턴 와이즈(Norton Wise)에게 보내라고 권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는데 끝 문장이 전형적인 쿤의 정확함을 느끼게 해 준다. “If you let me know what you plan to do, I can drop one or the other of them a note in advance. But I shall do that only if you would like me to.” 그는 남은 원고 수정 작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면서 내 원고에 연필로 많은 수정을 해서

동봉해 보내주었다.

I have simply not had the time to do detailed editing myself, but I have made a reasonably large number of marks in the first half of your manuscript, and I am therefore returning it to you with this letter so that you can get a bit of a start on the editorial process.

편지를 끝내면서 그는 다음 달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미국과학사대회(History of Science Society Meeting)에서 보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이 편지를 다시 읽으니 “though my primary involvement will be with the philosophers rather than the historians”라는 말이 덧붙여진 것을 보게 된다. 한편 나는 쿤이 이야기한 두 사람 중 하일브론 쪽을 택해 원고를 보냈는데, 그에게서 온 회답이 “Congratulations for passing the scrutiny of our exacting mentor!”라는 말로 시작한 것을 보면 쿤의 초기 제자였던 그 또한 나와 비슷한 경험을 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나중 쿤에게 하일브론이 그런 말을 썼더라고 했더니 그가 싫어하지 않아 했던 기억이 난다.

1년간의 프린스턴 체제가 끝나가던 12월에 나는 보스턴 그의 집으로 쿤을 방문해서 저녁을 같이 했다. 이런저런 이야기 중 당시 내가 중국 과학사의 일반적인 문제들에 대한 글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나는 조심스럽게 한번 읽어 줄 시간이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의 반응은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자신이 매우 바쁘지만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그것이 내게 도움이 된다면 읽어주겠다는 것이었다. 프린스턴으로 돌아간 뒤 나는 그에게 원고를 보냈는데, 그가 얼마나 바쁘고 내 글의 내용이 그의 주된 관심사와 얼마나 먼 지를 알기에 보내는 편지에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었다.

I now realize that I might have been a little carried away by my desire to have your comments on it. Please do not feel that you are bound to read it. If you find it possible to read it, however, I would appreciate your comments greatly, preferably before I leave, say by the end of January.

지금 와서 읽어보니 이것은 오히려 그에게 압력으로 작용했을지도 모르겠고, 그는 1월 중에 세 페이지에 달하는 긴 답을 보내왔다. 거기에는 여러 비

평과 조언들이 담겨 있었는데, 다음 내용이 솔직하지만 모든 면에서 최선의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그의 생각을 잘 보여준다.

You are attempting the sort of paper that will make senior figures in the field quite angry, at least some of them. It is essential that papers of that sort be written, but they are more likely to be taken seriously and less likely to do damage if they are presented by people who are already pretty clearly established in the field. [...] I do wonder a bit whether this is the sort of paper which you ought to be involved at this stage of your career.

이 편지의 끝에 가서 여전히 미진했던지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I like what you are up to quite a lot, and have found much of your material very interesting. It is simply that I think the paper is probably still at a relatively early stage, and that I am not quite sure that you ought to be working on a paper like this at this stage of your career, though you surely ought to be thinking about these issues.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의 충고를 들었어야 했던 것 같지만 나는 듣지 않고 얼마 후 이 글을 출판했다.⁶⁾

4.

1983년 2월말 1년간의 프린스턴 체재를 마치고 귀국한 후 10여 년 동안 나는 몇 차례 더 쿤을 만났다. 1985년 버클리에서 세계과학사대회가 열렸을 때처럼 학회 기간 중에 본 적도 있었지만 주로 미국 여행길에 그를 찾아가서 만났다. 그 중 기억에 남는 것은 1987년 가을 그의 집에서 아침을 같이 했던 일이다. 내가 방문하는 시기 마침 그의 부인이 집에 없던 때였는데 그는 저녁 식사는 안 되지만 자신이 아침은 마련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아침 식

6) Yung Sik Kim, "Natural Knowledge in a Traditional Culture: Problems in the Study of the History of Chinese Science," *Minerva: A Review of Science, Learning and Policy* 20 (1982), pp. 83-104.

사에 초대를 했던 것이다. 이때 그가 준비한 주 메뉴가 냄비에 물을 끓이고 끓는 물에 계란을 까서 집어넣어 계란의 모양이 안 흐트러진 채 익게 해서 꺼내 먹는 것이었다. 신기해하는 나에게 그는 먼저 싱싱한 계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포함해서 몇 가지 비결을 자랑스럽게 가르쳐 주는 것이었다.

쿤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1995년 2월이었다. 그 전 해 7월쯤 나는 그가 그동안 건강이 별로 좋지 않다가 많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터였기에 문 안 편지를 하면서 다음해 2월에 미국 여행 계획이 있음을 알렸었다. 내 편지를 받아 바로 쓴 답신을 그는 “I’m glad to hear that we may be able, next February, to make up at least a bit of lost time. I certainly expect to be here, and would be upset to miss a chance to see you”라는 말로 시작한 후 다음과 같이 그의 근황을 전하고 마무리했다.

I am at last quite fully recovered and back to work. But it’s been a dreadful year, and it’s less than a month since I got my head together sufficiently to return to work on the book which is currently my main project. Under those circumstances, I’m not going to try to write at any length. But I do want to tell you how pleased I am to hear from you and know that a chance to get together is forthcoming. I very much look forward to it.

그러나 다음해 2월 정작 내가 캠브리지에 도착했을 때 그는 목감기를 심하게 앓고 있었다. 식사를 같이하는 것은 힘드니 차를 같이 마시자고 해서 그의 집으로 찾아가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에 자리를 떴다. 앓는 중에도 멀리서 찾아온 옛 학생을 배려해서 굳이 보자고 해 준 것이 고마우면서도 불편을 끼쳐드린 것에 미안한 느낌으로 집을 나왔었다.

그리고 1년 남짓이 지난 후 나는 연구처로부터 서울대학교의 석학강좌 시리즈에 그를 초청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게 특급우편으로 편지를 보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책 집필 작업에 몰두해야 하면서도 항상 시간이 충분치 못해 안타까워하는 그의 상황을 잘 아는 나로서 이 같은 청을 하는 것을 펍 주저했던 것을 그 편지에서 내가 쓴 다음과 같은 문구에서 읽을 수가 있다.

This time I am writing to see if you will be able to accept an invitation for a lecture from my university. Perhaps this will surprise you, because you must know that I know all too well that you normally do not have time for this kind of engagement. But I am asked by one of our Deans to invite you, which I cannot reject on my own, and I thought that after all you might like to have some break in a foreign land.

내가 이렇게까지 쓴 것은 그가 워낙 이런 종류의 요청들을 많이 받고 있었고 그런 것들에 일일이 답하는 일마저 부담스러워 하고 있었음을 알기 때문이었지만, 그리고도 모자랐던지 내 편지는 다음과 같은 말로 끝맺고 있었다.

And please feel free to say no. In fact, I am writing this letter with a mixed feeling: while I like very much to have you visit us, I hate to become one of those people who disturb you with all kinds of agenda.

며칠 후에 그는 팩스로 답을 보내 왔다.

The invitation you addressed to me on 29 April is especially gratifying, and I wish I were in a position to consider it. But I cannot do so. Since you last saw me my health problems have grown worse rather than better. I'm not traveling (indeed for months on end I scarcely get out of the house), and I'm refusing all new undertakings. If that were not the case, the considerations that you so kindly enumerate would enter the decision process, and the answer might well be the same. In the event, they do not even arise.

Nevertheless, it's very good to hear from you (when your letter arrived I thought it might be announcing a visit). Thank your colleagues on my behalf [...]

병상에서 서둘러 쓴 편지에서 초청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는 그의 방식, 특히 굳이 “and the answer might well be the same”이라는 말을 덧붙인 것을 지금 읽으면서 항상 정확하고 솔직했던 그의 성격이 다시 느껴진다.

이것이 그로부터 받은 마지막 편지였다. 그리고 1년쯤 후인 1996년 6월 그는 세상을 떠났다.

5.

이상에서 내가 경험했던 쿤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들, 그리고 그와 주고받은 편지들에서 눈에 띄는 것들을 두서없이 썼다. 이 글을 읽음으로써, 특히 번역하지 않고 직접, 때로는 길게 인용한 그의 편지 구절들을 읽음으로써, 책이나 기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대학자가 사사롭게 한 학생에게, 특히 가까운 제자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지도교수도 아니었던 한 외국인 학생에게 어떤 식으로 대했는가를 볼 수 있을 것이고, 그의 성격이나 인품을 얼마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